

현자 전문가미쓰는 부산불교 이야기

‘나’에서 ‘우리’로... 동참의식 높아자

⑤ 200만 부산불자 결집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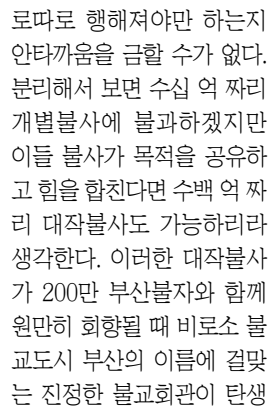
흔히들 부산을 ‘불교제1 도시’라고 부른다. 하지만 ‘불교제1 도시’에 걸맞는 위상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는 선뜻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다. 몇 해 전이던가, 타종교에서 부활절 집회를 부산의 상징인 사직동 아시안드 주경기장에서 개최한 적이 있다. 5만4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운동장에 2만5천명 정도가 모여 조금은 열광한 행사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때 몇몇 불자들은 인원도 다 못 채울 것을 무엇 하러 이곳에서 행사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타종교의 집회를 비아냥거렸다.

5월 부처님오신날 부산역 광장에서 열리는 봉축행사는 매년 1만여명 정도의 불자가 동참하고 있다. 200만 부산불자 중에서 고작 0.5%만이 동참하는 셈이다. 부산에는 1700여 대소 사찰 및 암자, 포교당이 있다. 이들 사찰에서 10명씩만 동참한다고 해도 1만7천여명이라는 인원이 되니, 1만명이라는 동참숫자는 참 답답한 숫자라 하겠다.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우선은 스님을 비롯한 우리 불자 개개인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나 하나쯤이야’라고 하는 피동적인 사고에서 ‘나 하나부터’라는 적극적인 동참의식이 필요하다.

물질적인 동참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우선 행사에 직접 동참하는 적극적인 불자상이 요구된다. 이러한 적극성을 회복할 때 비로소 부산불교의 진정한 위상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우리 부산불교계의 안타까운 현실은 개별적인 역량을 하나로 통합하지 못하고 따로 따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200만 부산불교신도를 대표한다는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에서 불교회관 건립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고, 시청 옆에는 부산불교회관이 들어서 있으며 인근의 양정에는 불교회관이 십여 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또 부산불교실업인회에서는 서면 부전동에 실업인회 자체 회관을 마련하여 불교병원 건립 등의 미래 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모 불교대학에서는 강의 공간 확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건물매입에 나서고 있다. 저마다 역할이나 목적이 뚜렷하게 차별성이 있었지만 왜 이러한 불사들이 따



박재훈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사무처장

‘불교도시’ 명성에 비해 행사 참여도 낮아 개별적 역량 한데 모아 시너지 효과 내야 상시적인 출·재가 교류 장구 확보 급선무



부산불자들이 불교행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불교 제일 도시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올해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장면.

하게 될 것이다. 불교와 관련한 모든 것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시너지효과 또한 클 것은 뻔한 일이다. 물론 각 단체나 사람들과의 이해관계와 의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러한 일이 실현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산불교를 대표하는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스님들을 중심으로 명분을 쌓고 서로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며 200만 부산불자들이 적극 동참한다면 이러한 시도가 결코 공염불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는 스님들의 단체이다. 종파를 구분하지 않는 스님들의 연합체가 불교연합회인 것이다. 이 같은 연합체는 서울의 한국불교종단협의회를 제외하고는 전국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매우 고무적인 기구이다. 하지만 재가와의 협력이나 유대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회의 법안화를 계기로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가 부산불교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제2의 창립을 준비해야 한다.

부산의 대표적인 신도조직인 부산불교신도회 역시 내실을 다지고 화합에 치중하여 각 종단이나 사찰의 신도회가 모두 동참하는 명실상부한 200만 부산불자의 대표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다종교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이 사회는 우리 불교에게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산사를 찾는 대중을 대상으로 교화하고 포교하던 정적인 불교에서 대중 결의로 한발 한발 다가서는 적극적인 불교로의 변화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자비실천을 근본으로 하는 부처님 가르침이야 사공을 초월하여 만유불변의 진리로 남겠지만 포교와 교화의 방법은 시대적 요청에 따라 동적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 부산불교는 2002년 동아시아 경기대회 당시 각 종단과 사찰이 적극 나서서 시민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성공적인 대회개최에 일조하고 이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대사회 참여에도 남다른 저력을 보여주었다.

예부터 우리민족은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피폐해지면 더더욱 부처님을 찾고 가르침에 의지하곤 하였다. IMF외환위기에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은 계속해서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지만 사찰을 찾는 불자들의 한결같이 돈독한 불심을 보면서 부산불교의 희망찬 미래를 발견할 수 있다.

따로 따로 개개인도 너무도 훌륭한 우리 부산불자이지만 이 힘을 한 데 모으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부족함이 느껴진다.

나, 나의 가족, 나의 사회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소극적 불교사랑에서 벗어나, 우리 이웃, 나아가 사회와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동참하는 적극적인 불교사랑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

마지막으로 부산 불교의 저력을 밑거름으로 부산역 광장은 200만 불자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부산역 광장이 인파로 넘쳐나고 교풍이 마비되어 온 시민의 욕(渴)을 한몸에 받아 먹는 즐거움 상상을 해 보면서 불자들의 폭넓은 불교사랑을 기대해 본다.



대성 스님을 비롯한 스님 9명이 부산경찰청 경승에 7월 27일 위촉돼 경찰포교 활동에 들어갔다.

부산경찰청 경승 9명 위촉

단장에 대성 스님, 정기법회도 봉행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강희락)은 7월 27일 대강당에서 부산지방경찰청 경승 위촉식과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범어사 주지 대성, 삼광사 주지 영제, 선암사 주지 원범, 해원정사 주지 원허, 해동용궁사 주지 정암, 구례 천은사 주지 금종스님 등 9명을 경승으로 위촉했다. 부산경찰청 강희락 청장은 “경찰의 힘

만으로 부산시민의 안녕을 지켜낼 수는 없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 여러 분과 시민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살기 좋은 부산, 불국토 부산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승단장 대성스님은 법어를 통해 “교단 하지도 좌절하지도 않는 진실한 내 안의 빛을 찾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했다. 이은아가자

먼거리 학생 위한 고시원으로 천불정사 건물 부산대에 대여



부산 천불정사주지 고담은 부산대학교 학생들을 위해 천불정사 소유 건물을 부산대학교에 10년간 무상 대여하기로 하고 7월 31일 부산대학교 학장 회의실에서 협약 조인식을 가졌다(사진).

부산대학교 인근에 자리한 천불정사 소유 지하1층, 지상 3층 건물은 조인식 이후 시설 개보수를 통해 고시원으로 사용될 계획이며, 원거리 통학 등 어려운 환경에서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20여명의 학생들을 수용할 예정이다.

김인제 부산대학교 총장은 이날 조인식에서 “스님과 불자들의 뜻을 이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불정사 주지 고담스님도 “힘든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뤄내는 학생들에게 이 작은 건물이 단단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온실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은아가자

관음원 무량수요양원 개원

사회복지법인 관음원대표이사 선래스님은 중풍, 치매 등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노인요양시설 무량수요양원을 7월 14일 개원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동 자락에 위치한 무량수요양원은 대지 600여 평에 지상 4층 건물로 16개의 입소실과 물리치료실, 의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관음원 대표이사 선래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서 많은 공덕을 회향하고 싶었다”며 “무량수요양원은 생사가 없는 아미타불의 세계 즉 참 마음의 자리를 깨닫는 곳으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아름다운 회향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60여 명이 생활할 수 있는 무량수요양원은 경승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면 누구나 입소가 가능하다. (051)552-7900, 7211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 (011)571-5316
 울산지사 : (052)272-0909

부모와 조상님께 등불을 밝힙시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LED 인등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불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사공합니다.

백중은 죽은 사람만 천도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이 마음을 닦아서 목련존자처럼 그렇게 내 마음이 천도가 되면 돌아가신 부모도 다 건질 수가 있다는 삼세가 도는 법을 말하는 아주 뜻이 깊은 날입니다.



우란분절(백중)등

- LED인등**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



중등 팔각봉축등 공단등 주름등(만월봉축등)